

십자가가 드러내는 사랑

갈라디아서 2: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**나를 사랑하사**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

우리는 앞에서 십자가로 표현된 그리스도의 성향에 대해 말씀드렸고,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허용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성향이 우리속에 역사하여 일으키는 능력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다.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성향을 항상 보존하며 드러낸다는 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 아니냐는 두려움을 표시한다. 그리고 십자가가 이러한 성향을 갖게 해 준다는 확신이 있어도 그런 두려움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. **왜냐하면 그 능력이 발휘 되는 일은 어느정도는 우리의 복종과 믿음에 따라 좌우 되는데, 그런 복종과 믿음이 우리 편에서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.**

우리가 복종과 믿음의 삶을 살수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온 것이다. **우리의 복종과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복종과 믿음을 일으킨다.** 십자가가 말씀하는 사랑을 올바르게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 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충만한 능력과 축복을 체험 할 수가 있다. 사도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.

갈라디아서 2: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**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**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

“**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**”

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리신 것인가? 우리는 이 사실을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. 이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한다. 이 사실을 깊이 감사하지 않는다.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한다면 우리가 복종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훨씬 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동이 될 것이다.

강남에서 가사도우미를 하고있는 50대의 아줌마가 있었다. 그녀는 아들이 죽자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사라졌다, 그런데 그녀는 손자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, 수소문해서 들은 이야기로 강남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다. 그 손자를 만나기 위하여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하기를 결심한다. 돈이 없어 서울로 이사 올 수있는 방법으로 강남에 있는 그 학교 가까이 있는 집에 가사 도우미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. 그 집에는 자기 손자 나이 되는 초등 학생이 있었다. 그 집 남편은 의사이고 부인은 큰 회사의 사장이다 그러므로 아들 초등학생을 돌볼 여유가 없어 과외 선생, 운전기사, 가사 도우미에게 맡기고 부모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다. 그리고 부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밤중에 싸움으로 온 집안이 난장판이다. 그리하여 그 아이는 날로 비뚤어져 갔다. 자기를 돕는 과외 선생, 운전기사, 가사도우미 기타 모든 사람에게 마음문을 열지 않고 풀려적이기까지 했다, 그러나 그 가사 도우미는

자기 손자를 돕는 것처럼 어떤 투정도 불편도 다 받아 주며 지극 정성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. 항상 그 아이가 무슨 음식을 좋아 하는가 알아서 맛있는 음식을 해 주고 그와 함께 음식도 만들과 과외 선생이나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같이 해주는 등 자기 친 손자를 사랑하듯 도왔다. 그러자 몇 개월이 안 되어 그 아이는 마음 문을 열고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할머니가 말하면 무엇이든지 고분고분 순종했다. .

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은 가사 도우미가 주인집 아들에게 베풀 사람에게 비할 수 있겠는가?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을 모르고 산다, 머리는 알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알지 못한다,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랑을 깊이 안다.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,

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**나를 사랑하사**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

십자가는 사랑의 계시이다.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흘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신 것이다.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도 거부 하시지 않았고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다. 우리 주님은 고상한 철학 적인 지식이나 아름다운 말로만 가르치시지 않고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쏟아부어 주셨다.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-죄의 저주와 인간의 적대를-다 이기시고 승리하셨다. 우리를 죄의 저주와 인간의 적대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만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다. 십자가야 말로 영원한 사랑의 승리의 상징이다.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랑이 보좌에 앉게 되었고, 이제 전능의 자리에서 그 사랑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이 원하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.

십자가가 내게 요구하는 요구에 대해서, 십자가가 내게 베풀어 주는 축복에 대해서 십자가의 의미와 영광과 생명에 대해서 새롭고 영광스러운 빛이 비추고 있다. 십자가가 나에게 준 능력의 약속 보다 나에게 향한 주님의 사랑이 훨씬 나로 하여금 죄와 악을 이기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신다.

십자가가 나에게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시는 사랑의 예수님, 살아 계신 주님을 가르켜 주신 것이다.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버려 십자가로 나아가셨고,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 백성을 구속하신 것이다. 이러한 사랑 가운데서 주님은 십자가의 교제 속에서 자기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신다. 그리고 십자가에서 얻으신 모든 축복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. 그리고 이제 그의 영원하시고 언제나 효력있는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. 그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을 그 능력이 한순간에도 쉬지 않고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.

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과 모든 것을 이기는 그의 사랑을 바라 보는 것이다.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사랑의 보증이다. 그 보혈이 바로 그 사랑을 지적해 준 것이다.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의 빛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다.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사랑이 오늘 우라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척도가 된다. 이 세상의 어떠한 권

세나 죄의 대적에도 굴하지 않는 그 사랑이 이제 우리 속에 방해가 될 모든 요소들을 다 정복할 것이다.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승리를 거둔 그 사랑은 우리에게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또한 유지 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사랑이다.

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며 그 사랑으로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이야 말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가장 큰 축복이다. 그것이야 말로 모든 축복을 누리는 길인 것이다.

그리스도의 보혈과 접촉하게 되어 그 피의 깨끗이 씻으심 아래서 매 순간 살아 가는 사람들은 과연 그 사랑을 얼마나 충만하게 누리며 살겠는가!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예수님과 그 사랑을 연합시켜주는지 모른다. 그리스도는 대 제사장이시다. 그 마음에서 그 피가 흘러나오고 그 마음으로 그 피가 돌아간다. 그리고 그 자신이 그 피를 흘리는 목적이시오, 그 자신이 그 피흘림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다. 그는 대 제사장으로서 온유한 사랑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며, 그리하여 십자가가 우리 삶의 법칙을 세워 놓은 그 성향이,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바 승리가 우리로 말미암아 실현되도록 하시는 분이다.

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의 보혈에 있다. 그러나 그 충만한 축복을 체험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려야한다. 우리 주님의 피 한방울 한방울은 우리 자신의 의지를 죽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죽일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과 하나님의 무한자원을 공급 받을 수 있다.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무한 자원을 공급 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.